

## ●시나가와 역사관 해설지 에도의 명소, 시나가와

시나가와 역참마을의 사계절

에도 시대의 시나가와는 수도 에도부터  
헤아려 첫 번째 역참마을로서 여행객들로  
붐비는 한편, 에도 근교의 행락지로서도  
번성했습니다. 멀리 보이는 보소 반도의  
줄지은 산들과 눈앞에 펼쳐지는 바다, 신선한  
어패류를 사용한 요리는 많은 이들을 즐겁게  
했습니다.

또한 시나가와는 사계절의 풍경을 즐길 수  
있는 곳으로도 유명했습니다. 봄이면 벚꽃  
명소인 고텐야마는 많은 꽃놀이 인파로  
붐볐습니다. 뿐만 아니라 시나가와의 바다는  
멀리까지 수심이 얕아서 많은 이들이 갯벌  
조개잡이를 즐겼습니다. 여름에는 달빛 속에  
세 부처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신앙이 있어  
월출을 기다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. 이때  
시나가와 연안에 배를 띄우고, 음식을 먹는  
사람들도 있었습니다. 가을에는 에도  
제일로불려지는 가이안지 절의 단풍,  
겨울에는 바다에서 김을 채취하는 풍경이



▲시나가와를 모티브로 한 유카타(복원)

있었습니다. 이러한 모습들은  
우키요에(풍속화)의 소재가 되어, 우타가와  
히로시게 및 가쓰시카 호쿠사이를 비롯해  
많은 화가들이 그림에 담았습니다.

명소를 무늬로 한 유카타

19세기에는 에도의 명소를 소재로 한  
유타카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. 이  
유타카도 그중 하나로, 시나가와 등에서  
잡히는 어패류를 모티브로 했습니다. 안과  
겉의 무늬가 똑같이 겹치는 기법으로  
염색했습니다.



▲에도 명소 고텐야마의 꽃놀이 유타가와 히로시게(제 1 대)